

코스피 2921.92 (0.00)	코스닥 971.39 (0.00)
금리 (국고채 3년) 2.044 (+0.091)	환율 (원/달러) 1187.30 (-0.20) (14일)



한화손해보험 미리보기
쉽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보험계약 청약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대경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수수료가 적용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보험은 차량이 세제될 수 있습니다. *방한 및 출장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해외 여행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해외 여행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해외 여행보험은 해외 상황에 따라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경우 해외 여행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본 광고는 판권상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통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명서는 2022-700002-판서2022.01.05~2023.01.04

‘3나노 GAA 도입’ 앞둔 삼성전자 TSMC, 52조 쏟아 2나노로 승부

글로벌 파운드리 초미세 경쟁

TSMC, 지난 4분기 매출 신기록 올 설비에 440억달러 투자 계획 7나노 이하 미세공정 80% 투입 삼성, 반도체 비전 2030 가속화 우수한 공정에 1~2년 물량 수주 상반기 3나노 1세대 GAA 도입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대만 TSMC 12인치 팝 내부 모습 /TSMC

대만 TSMC가 역대급 실적에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지키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올해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비전 2030’을 향해 속도를 불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초미세공정과 수율 확보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4분기 매출액 157억4000만달러(한화 약 18조 70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1%, 전분기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5나노 수요에 따른 성과라는 설명이다.

올 1분기에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기준으로 166억달러에서 172억달러로 4분기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TSMC는 지난해 높은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발표로

파운드리 업계를 긴장케 했다. 지난해에는 300억달러를 쏟지만, 올해에는 400억달러에서 440억달러를 설비투자에 쏟는다는 것.

삼성전자는 DS부문 사업 실적은 TSMC에 뒤지지 않는다. 4분기 전망치가 30조 수준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90조원을 훌쩍 넘기며 미국 인텔도 넘어서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파운드리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점유율로는 지난 4분기에도 여전히 20%를 넘어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약 30조원을 투자했으며, 4분기까지 40조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비중을 파운드리에 투자하기 했지만 메모리

분야에도 투자가 없지 않았던 만큼 TSMC와 비슷하게 쓴 셈이다.

올해에는 TSMC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신규 팝에 20조원을 비롯해 약 45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컨퍼런스콜에서는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SMC가 투자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공정별로 4분기 매출 비중이 7나노가 27%, 5나노가 23%로 초미세공정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유일한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 중 70~80%

를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극자외선(EUV) 공정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1~2년 물량 수주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IBM과 웰컴, AMD 등이 고객사로 추정된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도 점유율은 17%대,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한 이후에도 TSMC와 격차를 전혀 좁히지는 못했지만, 초미세 공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TSMC에는 적지 않은 위협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1세대 양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GAA는 회로의 4면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TSMC가 사용하는 펀펫보다 전력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GAA와 같은 기술인 ‘리본펫’을 장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 개발을 시작한 탓에 TSMC는 아직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 허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한편 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이 같은 조치를 3주간 연장키로 했다.

/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닷새 째 4000명 대 위중증 환자는 감소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다. 일주 전보다 8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194명 발생하며 지난 12일 이후 닷새째 4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와 비교하면 818명 늘어난 규모다.

신규 확진자 중 1211명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됐다. 검사 양성률은 2.1%이다.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는 457명으로 전날보다 5명 증가했다.

3차 접종이 많이 진행된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612명으로 전일보다 14명 줄어들면서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31.8%로 직전일(33.8%)보다 2.0%포인트 줄었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가 몰린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36.4%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차 접종 참여자는 누적 2333만7078명으로, 전체 인구 45.5%가 3차 접종을 끝냈다.

이번 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시작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처방이 시작되면서 전일 까지 전국에서 총 9명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대다수가 점차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eilee@

UAM 상용화 속도내는 통신3사, 시장 선점 물밑경쟁

〈도심항공교통〉

SKT·KT, 팀 꾸리고 생태계 구축
LGU+, 5G 기반 드론사업 강화

서, UAM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봤다.

UAM이란 ‘에어택시’, ‘플라잉카’로 불리우는 도심에서 운행하는 항공으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비행형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eVTOL)를 활용한 항공 이동 서비스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에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저지연 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통신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손꼽히며, 관제와 통신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에 맞서 UAM 시장을 선점하

려 하고 있다.

SKT는 UAM 서비스를 위해 CEO 직속으로 TF(태스크포스) 조직과 함께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나선다. CEO 직속으로 신규 사업 조직을 설립하고 핵심적인 임원들을 배치한 것은 유 대표의 UA M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SKT 유영상 대표는 지난 3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 레터를 보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늘을 나는 차(UA M)가 앞으로 10년 내에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10년을 미리 준비하고자 제안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볼로콥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뉴스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 대통령, 오늘 UAE와 수소협력 논의…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 이재명, 광주 붕괴사고에 “고질적 복 부실시공 또 한번 드러내” /사진 뉴시스

▲ 靑 “먹는 치료제 도입, 손꼽히게 빨라… DUR로 안전한 투약”

▲ “안철수 콘텐츠 한 눈에”… ‘앤플릭스’ 20일 오픈

▲ 윤석열, 민노총 집회에 “법 위에 군림… 불공정의 상징”

▲ ‘침거’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 나흘만에 사실상 일정 재개 /사진 뉴시스